

해남군, '괭생이 모자반' 선제 대응

10월까지 수거처리...김양식장 피해 대비

해남군이 매년 김, 전복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뜻한 해역에서 잘 자라는 해조류인 괭생이모자반은 2015년경 중국 남부에서 해류를 타고 제주도 및 전남 서남해안에 대규모 유입된 뒤 양식장 주변에 자생군

락을 이루어 번성하고 있다.

김 망이나 미역, 다시마 시설물과 영커 염체를 탈락시키고, 성장을 막는 것은 물론 채취시 혼합되면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산소부족 등으로 인해 전복 폐사를 유발하기도 한다.

해남군은 김양식이 본격 시작되기 전 괭생이 모자반을 수거해 양

식장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6월부터 수거작업에 돌입, 현재까지 270여톤 가량을 수거했다.

괭생이 모자반이 주로 발견되고 있는 송호와 땅끝, 여란 해역 등을 중심으로 9~10월까지 수거작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어장 예찰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 계획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2015년부터 2018년까

지 6,000만원을 투입해 3,500톤의 괭생이 모자반을 지속적으로 수거 처리해 왔다.

한편 괭생이모자반은 수거 후 퇴비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후코이단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 감안해 말린 후 죽, 반찬, 간장 등에 첨가한 제품을 시판하는 등 향후 식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함평군, 영양플러스 요리교실 운영

함평군보건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영양플러스 요리교실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양보충식품을 활용한 이번 요리교실은 임신부와 영유아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다문화 가정 등 40여 명의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들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조리 레시피 등을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확된 단호박, 감자, 검은콩 등의 유기농 제품을 활용한 총 4종

의 요리도 직접 실습했다.

교육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A씨는 "한국음식조리에 서툴러 요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손쉬운 레시피 등을 알게 돼 요리에 자신감이 더 붙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명희 함평군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영양교육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리실습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3기 도시재생대학 개강식 가져

무안군은 23일 무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발굴, 주민참여 사업을 위한 제3기 도시재생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제3기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뉴딜의 이해,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및 주민의 역할 이해 등에 대해 교육하고 탐방 토론 및 주민참여형 사업을 발굴하고 직접 수행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지속적인 도시재생대학 참여를 통한 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목표로 5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선진지 견학을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도시재생대학 과정은 도시재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주민 주도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강진청자축제 전통가마 요출공개 및 즉석경매 실시



강진군이 제47회 강진청자축제 기간인 10월 5일에 고려청자박물관 제2호 강진요에서 전통방식으로 구워낸 청자의 요출과정을 공개하고, 요출된 작품의 즉석경매도 실시한다.

공개되는 작품은 25일부터 26일 이틀간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전통 방식으로 소나무장작을 넣어가며

1천300도를 넘는 높은 온도를 견디며 구워진 것이다.

작품 요출은 10월 5일 11시에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전에 요출 되어 즉석 경매되는 작품은 강진관요(康津官窯)의 전통가마에서 구워낸 작품임을 인증할 수 있는 목(木)자를 제작과정

에 새겨 넣어 명품청자로 차별화된 작품들이다.

고려청자박물관 앞 무대에서 오후 3시부터 공개경매를 실시하고 경매 시작가는 판매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에서 시작한다. 시작가보다 높게 구매 희망 가격을 적어 투찰함에 넣으면 응찰한 가격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이 낙찰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된 작품에는 별도의 작품보증서를 함께 발행한다.

한편, 가을로 개최시기를 변경한 제47회 강진청자축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일원에서 열린다. 청자 조각하기 체험 등 7개 분야 75개 단위행사로 구성되어 체험형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해양기후치유 가을 프로그램 운영

완도군이 해양기후치유 가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을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금, 토요일에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이로키네시스, 노르딕워킹, 요가, 필라테스, 명상 등이며 유명 강사의 지도와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수찜과 꽃차 음용, 톳 초밥, 보리개떡, 해초 떡볶이 시식 등 해양치유 음식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을 프로그램은 명사십리 일원에 최적의 요건을 갖춘 해양기후치유 체험장에서 운영한다.

새롭게 조성한 체험장은 명사십리 소나무 숲 아래 모래밭으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맑은 공기를 맘껏 마시고, 파사로운 가을 햇살과 부드러운 모래 감촉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파도 소리는 사람에게 이로운 대표적인 백색 소음이며 우리 뇌에서 알파파를 활성화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체험장 주변에 설치한 비치바스켓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명

상과 명 때리기 체험도 할 수 있다.

특히 해수면으로부터 약 1.5m 높이의 공기가 가장 깨끗하여 인체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해수 수질 1등급인 명사십리 해변의 파도가 발생시키는 해양에어로졸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 섬모 운동을 촉진시켜 가래나 이물질 등을 쉽게 배출하게 하고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명사십리해수욕장은 모래가 부드럽기로 유명해서 단단한 지면보다 균형을 잡는데 더 집중해야 해서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 크다.

가을 바다에 쏟아지는 햇볕을 통해 비타민D를 흡수하면 골다공증 예방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높다.

완도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날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사십리 일원에 해양기후치유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가을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비는 무료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영암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영암군은 10월 4일까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하반기(2차)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

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

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주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영암=조재호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